

# 지방선거 출마 광역의원·단체장 줄사퇴

### 광주시의원 23석중 6명 사퇴·예정 전남도의회 의원 9명 사직안 의결 이용섭 광주시장 30일께 시장 사퇴 회기 등 겹쳐 행정·의정 공백 우려

6·1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현역 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사퇴가 잇따라 당분간 의정·행정 공백 우려가 예상된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김학실(민주·광산3선거구) 의원이 사퇴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현택(민주·서구4선거구) 의원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김익주(민주·광산1선거구) 의원 등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의 사퇴도 점쳐진다.

울기며 사퇴한 김동찬 전 광주시의원 등까지 포함하면 23석 중 6명이 사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 등 향후 의정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과반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공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5~6명으로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는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30일께 시장직을 사퇴하고 재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시장·군수 선거 도전을 위한 사퇴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오는 4월 19~29일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정 공백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오하근(순천4) 도의원이 지난달 15일 순천시 출마를 위해 가장 먼저 사퇴했다.

이어 도의회는 24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재(광양1)·이상철(곡성)·구복규(화순2)·문행주(화순1)·곽태수(장흥2)·유승희(영암1)·유성수(장성1)·박진권(고흥1)·이보라

미(영암2) 의원 등 모두 9명의 도의원 사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9명은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군수 선거에 나선다.

이밖에도 김한중(민주당·장성2) 도의회의장이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날 시점을 검토하는 등 시장·군수 도전을 위해 의원직 사직했거나 고려 중인 도의원만 전체 58명 중 16명에 이른다.

전남도의회는 김한중 의장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역 도의원들의 줄사퇴는 민주당 경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퇴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이다. 사퇴시한에 앞서 의원직에서 물러나 예비후보 자격으로 단체장 경선에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6·1 지방선거 라운지

### “서구를 광주의 중심지역으로”...김보현 서구청장 출마

김보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 대변인은 24일 “협치와 협업, 연대와 협력을 구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아 서구를 광주의 진정한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광주시에 출마 회견을 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주민 중심의 서구 자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심과 구 도심의 균형있는 서구발전 ▲인문학과 문화예술의 품격있는 서구구현 ▲주민중심 서구자치 실현을 구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최치현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26일 선거사무소 개소

최치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하남농협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 예비후보의 삶을 담은 노래 ‘사랑과 사람 사이’가 지역 밴드인 프롤로그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 노래는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과거 최 예비후보에게 지어 준 시에 프롤로그가 멜로디를 붙인 곡이다.

개소식에는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이용빈 광산갑, 민행배 광산을 위원장이 참석한다.

/최권일 기자 cki@

### “행복한 순천”...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순천시시장 출마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24일 순천시청에서 6·1지방선거 순천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더 큰 순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총장과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장 예비후보는 “더 큰 순천을 위해 인재의 고장·제1의 교육 도시 명성회복, 청년 벤처 일자리 창업 활성화, 세계적인 스포츠 전진기지, 의료 관광중심도시 기반 조성, 생태관광도시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순천대 총장 시절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활성화를 위해 약학대를 유지하는 등 순천대학 발전에 앞장섰다. 8년 동안 전남 도교육감으로 재직할 때는 순천만잡월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 각종 학교 시설개선 등 순천 교육발전에 힘썼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새로운 영암”...전동호 전 전남도 국장 예비후보 등록

전동호 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24일 “새로운 영암을 기치로 행복한 복지, 편안한 교육, 건강한 성장, 안전한 개발을 내세우며, 새로운 영암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전 전 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지난해 6월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을 마지막으로 35년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했다. 이후 영암읍에 거주하며 400여 곳이 넘는 영암군 전체 마을을 새벽부터 돌아보며, 현실 문

제와 대책을 SNS에 꾸준히 제시해 왔다”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전 전 국장은 재임 기간 공로로 인정받아 2021년 12월 홍조근정훈장, 2019년 녹조근정훈장, 2001년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 지역경제 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장성군수 출마 선언

전남도의회 김한중 의장은 24일 “특권층 패거리 정치를 끝내고 장성군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장성군수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 김 의장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3선 도의원에서 예산결산위원장, 농수산환경위원장, 의장을 거치는 동안 받은 과분한 사랑을 5만 장성군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공정과 혁신으로 군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계약 분야 밀실 행정을 타파해 군민 신뢰를 회복하고, 낭비성 행사 축소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통해 복지와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

## 민주 지방선거기획단 “청년·여성 공천 문턱 대폭 낮추겠다”

### 27일 2차 회의 비율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여성과 청년 공천을 늘리기로 했다. 당 사무총장인 김영진 단장은 이 회의에서 “더 많은 청년, 여성 인재가 민주당의 후보로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며 “국민공천과 혁신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여성과 청년 등 정치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당원 당규를 정비했고 당원 교육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능력 있는 일꾼이 뽑힐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과 여성이 다 같이 참여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실천할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 3회 회의를 열고 예비 후보자 자격 검증, 공천에서 여성·청년 비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지선에서 여성과 청년 공천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에서 “제가 주어진 소임은 명확하다”며 “당이 지선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과 청년을 대거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제껏 여성(공천) 30%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과 여성을 다시 한번 봐 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의회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안

전남도의회는 24일 제360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의 무리한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다는 점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등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48명의 도의원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합참정보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

계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일반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정보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000억원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인수위원회는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고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전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나가거나 집회·시위가 발생하면 국방부와 주변 지역의 혼잡이 예상된다”고 했다.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은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지방선거 청년·성별 할당제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에서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젊은 당 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 할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을 준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다면서 “우리 당의 공천은 개혁성과 민주성을 근본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뭇발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 20분 4차선 신철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돌외벽 스텔라블루 129㎡(39평)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 원
- 2 /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철 4차선 I.C 근접  
광주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차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 원
- 3 /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층)**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 2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 원
- 4 /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 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5천 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